



"여든에 죽어도 구들 동티에 죽었다지"

뜻: 당연히 일어날 일인데도, 괜히 다른 것을 탓하거나 핑계를 댈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핑계 · 원망 · 현실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여	든	에	↓	죽	어	도								
구	들	↓	동	티	에	↓	죽	었	다	지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여	든	에	↓	죽	어	도								
구	들	↓	동	티	에	↓	죽	었	다	지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ㄷㅇ] [ㅈㅇㄷ] [ㄱㄷ] [ㄷㅌㅇ] [ㅈㅇㄷㅈ]

웹에서 보기

